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정유업계의 입장

- 대한석유협회 -

최근 일부 언론의 정유사 관련보도로 인해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정유업계는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보도에 대하여 정유업계에 대한 여러가지 오해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밝혀 국민 여러분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석유제품 가격 담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 현재 전국 주유소는 1만여개로 이중 8천여개가 개인주유소로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거리제한 철폐 이후 주유소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동일 지역내에서도 주유소간 가격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치열한 가격경쟁 등으로 도산하는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 IMF이후 국내 석유시장은 공급과잉 상태로 정유사간의 시장 점유율 확대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가격 담합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석유공사에서 매월 실시하고 있는 가격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6월 현재 정유사별로 휘발유 가격기준으로 리터당 1,232~1,279원으로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정부는 덤핑판매를 통한 무자료거래 및 탈세, 판매업소간 횡적거래 등 석유유통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98년 7월, 석유사업법에 의거하여 석유유통질서 확립대책을 마련하여 지자체, 석유관련협회, 정유사 등이 참여하는 '유통질서저해행위

실무조사단'을 지역별로 운용토록 각 시·도, 관련협회 및 업계 등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 정유업계는 정부방침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시·도공무원이 참여한 지역별 유통질서확립대책반을 구성하여 그동안 약 130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석유유통협회를 통해 산업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혼탁한 석유유통질서를 바로 잡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이처럼 공동대책반은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정부지침에 따라 구성·운영된 기구입니다.
- 2.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내유가 산정방식은 과거 정부 고시가 시기부터 사용해 온 국제제품가 연동제 방식으로, 이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국제원유가격, 국제제품가격, 환율 등 객관적 자료를 입력하면 가격이 곧바로 산출되는 투명한 방식입니다.
 - 국내 정유사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막대한 시설투자를 해왔으나, 석유시장 조기개방으로 투자비 회수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품 가격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등의 고정비가 반영되지 않은 변동비 수준의 일부 수입제품 가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정유사에게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에너지의 전량 수입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 이 경우 국내의 수요 물량규모나 품질규격을 충족

시킬 수 있는 아시아 지역 국가가 없어, 국내 석유 제품을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입제품 가격의 폭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 1999년의 경우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실제 정유사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율과 자기자본 이익율은 주요 에너지 공기업이나 제조업 평균을 현저히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정유사가 석유수입사를 고사시키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후발사인 석유수입사들은 원유를 도입하여 국내에 필요한 모든 석유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정유사와는 달리 마진이 높은 일부 유종만을 선택적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국내 수급안정보다는 단기수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97년 국내 석유산업이 자유화된 이후 석유수입사는 17개 업체로 급증하였으며, 이들 수입사들은 시장확보과정에서 현행법을 어기는 무리한 영업전략을 펴온 것이 사실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폐업계는 수입사들에 의해 계속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동대책만 활동은 수입사가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 정유사와 계약이 끝나지 않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자사 주유소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을 위한 행위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원자재인 원유와 완제품인 석유제품에 관세 및 수입부과금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막대한 시설투자를 통해 국내 수급안정에 기여 및 고용확대 등 국내 부가가치 창출에 공헌하고 있는 정제업자가 오히려 수입사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

니다.

4. 향후 정유업계는 Hedging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가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원재료를 수입·가공해 판매하는 수입업자의 입장에서 낮은 가격에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 원유도입과 관련 Hedging을 하기 위해서는 원유의 미래가격 및 환율예측이 필수적이고 발달된 선물시장에서 첨단기술의 금융기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잘못했을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입니다.
- 만약, 성급히 이를 도입하여 운용할 시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직면하기 쉽고 이 모든 비용은 국가와 소비자가 짊어져야 할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외국의 경우도 소규모 Trading 회사에서 Hedging 거래를 많이 하지만 Major는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유사들은 이를 감안하여 Hedging에 앞서 위험이 최소화되고 원가절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며, 이외에도 구조조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가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 저희 정유사들은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60년대부터 에너지를 공급,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